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과 한시 -남용익을 중심으로-

이 남 면*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상상력과 지식의 적극적 발현 |
| II. 다양한 체식의 시도를 통한 遺懷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 한시를 살피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南龍翼(1628-1892)의 바다 체험 한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시를 형식과 표현의 측면에서 살폈다. 남용익은 1655년 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을 다녀오면서 『扶桑錄』에 다량의 바다 체험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분명한 작시 경향을 드러내었다.

남용익은 바다 체험 과정에서 시의 창작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그는 배안에 있거나 섬에서 체류할 때 정격의 시 뿐만 아니라 잡체시로 분류되는 다양한 체식의 시를 지었고 또 동료들과 聯句를 자주 지었다. 잡체시는 회작으로 분류되지만 정격의 시에 규칙을 추가하거나 제한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창작이 난해할 수 있으며, 연구는 공동 창작이기 때문에 시상의 흐름과 연결이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용익은 유희적이면서도 집중이 요구되는 체식까지 다양하게 지으며 소일함으로써 사행의 답답함과 무료함, 근심과 걱정, 슬픔 등의 회포를 풀었던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lnm96@hanmail.net

또한 남용익은 바다 체험 과정에서 자신의 상상력과 지식을 시에 적극적으로 발현하였다.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관련짓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 중간에 연결 장치를 설정하는가 하면 꿈속의 상상을 통해 신선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해 다양한 역사 전고를 聯想하여 비유하였다.

남용익의 바다 체험은 그의 나이 28세에 있었던 일이다. 그 스스로 『부상록』을 평생 저작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큼 당시 그가 지은 작품들은 공력을 들인 역작이었다. 그 공력은 정격과 변격, 단편과 장편, 개인 창작과 공동 창작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을 시도하면서 상상과 연상 능력을 발휘하고 확대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결과적으로 바다 체험은 남용익의 작시 능력을 크게 성장시킨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통신사행인, 바다체험, 남용익, 잡체시, 聯句, 遣懷, 상상력, 지식

I. 서론

전통시대 문인들의 바다 체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태생적으로 해안 지역에서 나고 자란 경우이고, 둘째는 금강산 유람과 같이 관광하러 가는 중에 바다를 접한 경우이며, 셋째는 공무상 해안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수로로 사행을 다녀온 경우이고, 넷째는 바다에 漂流했거나 외침으로 被擄人이 되어 바다를 경험한 경우, 다섯째는 해안 지역으로 유배된 경우이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시대 문인들이 바다를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들로 바다를 접하고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문인들은 적지 않다.

본고는 세 번째 유형으로서 통신사행인이 바다 체험을 통해 남긴 한시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통신 사행길은 유배객이나 유람객 등이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아닌, 망망대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통신 사행인의 바다 체험은 부산에서 대마도, 壺岐島, 藍島, 赤間關을 거쳐

大阪까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이 남긴 기록은 '사행록'으로 따로 묶이기도 했고 문집 속에 흩어진 채 수록되기도 했다. 이 기록들은 산문이나 한시만 실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산문과 한시가 섞여 있기도 하다.

그 중 한시는 바다 체험 과정에서의 느낌을 술회하거나 섬지역의 풍속을 읊은 작품이 많다. 조선 후기까지 수차례 통신사행이 있었지만 바닷길의 노정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여러 문인들이 술회한 시의 주제와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임금과 부모, 고향에 대한 그리움, 뱃길의 무료함과 불안감, 고생하는 처지에서 오는 슬픔, 선계의 회귀, 정몽주·신숙주·박제상 등 역사적 인물 및 임진왜란의 회고, 인생에 대한 깨달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개별 작가의 성향에 따라 비중과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새로운 주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위의 주제와 내용이 많은 작가들의 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시의 주제와 내용, 작가의식은 비슷하게 나타나도 그것을 위해 시형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시인마다 다르다.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 한시 연구는 각 통신사의 사행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작품이 인용된 경우로 국한되었다. 대부분의 사행록 연구는 조선 문사들의 일본 인식, 양국 문인들 간 교류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바다' 체험은 연구의 중심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을 다룬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허경진, 임채명, 윤인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허경진은 安瓚(1564-1640)과 金世濂(1593-1646)을 중심으로 하여 수로조천록과 통신사행록에 담긴 바다 체험을 비교하였고¹⁾, 임채명은 바다 체험 시문에 나타난 양상을 '왜구의 침략 현장', '사행의 해상 노정', '선계의 진입 경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²⁾ 윤인현은 한국 한시에 나타난 바다에 대해 여러 작가들을 살피고

1) 허경진, 「수로조천록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43, 한국한문학회, 2009.

2) 임채명, 「조일 문사의 눈에 비친 남해 그리고 현해탄」, 『한국한문학연구』43, 한국한문학회, 2009.

서 『海行摠載』에 실린 일본 인식의 변화상을 살폈다.³⁾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통신사행인에게 바다는 어떤 공간이었으며 바다 체험 문학의 실체는 어떠한지가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모두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시의 경우 형식이나 표현을 살피는 데에까지 나가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 한시⁴⁾를 형식과 표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 작가는 1655년 통신사 종사관이 되어 사행에 참여했던 南龍翼(1628-1892)으로 하였다. 남용익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扶桑錄』에 바다 체험 한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 그 체험 양상을 살피기에 유리하고, 그가 바다를 체험하며 한시의 형식과 표현에 크게 신경 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⁵⁾

Ⅱ. 다양한 체식의 시도를 통한 遣懷

통신사행인들이 바다를 경유하며 회포를 푸는 방법으로 시를 짓고 서로 수창하는 일은 아주 흔했다.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대마도, 남도, 적간관 등의 섬에 잠시 정박해 있을 때에도 일본인들의 접견을 받는 일이 아니면 출발을 기다리며 배에서 지냈다. 문인들은 뱃길의 험난함, 장기 체류로 인한 답답함과 무료함, 고향 및 부모

3) 윤인현, 「한국 한시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한국한문학연구』43, 한국한문학회, 2009.

4) 본고에서는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 한시'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여 저자가 일본으로 가는 중 바다와 바닷가에 있을 때 지은 시로 보았다. 따라서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오고 가는 중에 지은 시를 모두 바다 체험 한시에 포함시켰다. 대마도, 남도 등 섬에 잠시 체류할 때 지은 시도 포함하며, 혹 그 시의 내용이 바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바다에서 지었다면 역시 포함하였다.

5) 각주 4)의 기준을 따를 경우, 남용익의 『부상록』에 수록된 바다 체험 한시는 약 190수 가량 된다. 바다 체험 한시를 많이 남긴 작가로는 金誠一, 趙綱, 金世濂, 申濡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남용익의 작품 수는 많은 편에 해당하며, 시 형식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는 단연 남용익이다.

에 대한 그리움, 섬지역의 풍속 등을 읊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시의 형식으로 正格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작가들은 정격의 시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의 시체를 선택하는가 하면 동료들과 공동 창작을 하는 등 창작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회포를 풀기도 했다. 여기에서 정격의 시에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거나 제한을 가한 시체를 흔히 雜體詩⁷⁾로 명명하고, 공동 창작을 聯句라고 한다. 각 통신사행록에 이런 작품들이 몇 편씩은 대부분 보인다. 그러나 남용익의 경우는 이러한 작품을 여타의 통신사행인에 비해 많이 지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의 잡체시 창작은 훗날 그가 육로로 중국 사행을 다녀오면서 잡체시를 짓지 않은 것과는 차이도 보인다. 즉 바다 체험의 산물인 것이다.⁸⁾

잡체시는 보통 戲作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작가 개인이 이러한 시형의

- 6) 여기에서 말한 '정격'은 절구, 율시, 고시 등을 지을 때 요구되는 평측, 압운, 구식 등의 일반적 규칙을 지킬 뿐 그 외의 추가적 규칙이나 제한을 가하지 않은 한시 격식을 뜻한다. 혹 칠언고시 중에서 雜言體의 시는 구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악부에서 연원한 '고풍(古風)' 추구에 목적을 두었거나 두보, 이백 등 유명 작가의 잡언체를 모방하여 지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추가적 규칙이나 의도적 제한을 가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 7) '잡체시'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배규범과 이미진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배규범, 「雜體詩의 範疇와 現況—佛家漢詩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53, 대동문화연구원, 2006; 이미진, 「朝鮮中期 雜體詩 創作에 대한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8) 부연하자면 바다 체험에서 오는 '이동과 공간의 제한'이 남용익의 잡체시 창작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남용익은 평생에 걸쳐 약 55수의 잡체시를 지었는데 창작 장소 및 시기는 그가 고향인 양주에 칩거하고 있을 때와 통신 사행을 다녀올 때로 크게 양분된다. (이남민, 「남용익의 잡체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6호, 한국어문학국국제학술포럼, 2014, p.254. 참조) 이 두 가지 상황은 '공간과 이동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는데,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시 형식의 변화와 다양화를 통해 답답함과 무료함을 풀고자 했던 것 같다. 남용익은 1666년 謝恩 및 進奏副使로 중국 연경을 다녀온 바 있으나 그가 남긴 『燕行錄』에는 잡체시가 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육로 사행에서 회포를 푸는 수단으로 '잡체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양주에 칩거하고 있거나 바다 및 바닷가에 있을 때에 비해 공간의 제한이 적고 이동이 편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창작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과 수창하려면 상호간 기호가 맞아야 한다. 회작으로 분류되지만 정격의 시에 변형을 주거나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면서도 전체적인 시상의 구조가 적절하고 내용이 충실히 담겨야 하기 때문에 정격의 시에 비해 오히려 창작이 난해할 수 있다. 聯句 역시 회작으로 분류되며 앞선 창작자가 한두 구를 지으면 다음 사람이 시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 창작 능력이 있어야만 작시가 가능하다.

남용익은 당시 일본 사행에 참여했던 통신부사 俞瑒(1614-1690)과 함께 잡체시 창작을 공유하여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또한 정사 趙珩(1606-1679), 부사 유창, 讀祝官 李明彬과 함께 연구 역시 여러 편 지었다. 이 외에도 '詞', '賦', '駢儷文'을 짓는가 하면 변려문을 聯句로 짓기도 했다. 남용익이 바다를 체험하며 지은 다양한 체식의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阻風留滯效吳體	效憶秦娥一闋
和秋潭玉連環體	效望江南詞
效回文體	二十日始發馬島風順舟輕晡時到一岐在舟也無以遺懷作舟中九曲以相萬里之役
月夜聞笛, 集唐人詩句	維舟三日阻風不發偶作駢語默禱海神
又集李杜詩句, 成近體一首	又與秋潭戲作駢語仍成集聯
和秋潭三五七言	更下海岸與兩使及讀祝聯句
次秋潭 進退格	宿阿彌寺記爾日行役之勞呈兩使 進退格
和秋潭國名體【一句二國名】	壯遊聯句
又次卦名體【一句二卦名】	八月初一日行望闕禮感懷聯句
偶效數名體, 呈兩使要和	雨中聯句
候風八日客懷甚惡戲作疊字體自遣	大坂城行【雙韻】
次讀祝辰字【扇對格】	發大坂暫憩島主別舍因請詩題贈六言律
次秋潭六言絕	

남용익 전후 시기의 통신사행인 중에서 잡체시와 연구를 여러 편 지은 작가로는 1590년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온 金誠一(1538-1593)이 있다. 그는 당시 동행했던 정사 黃允吉(1536-?), 서장관 許箴(1548-1612), 독축관 車

天輅(1556-1615) 등과 함께 建除體, 玉連環體, 一字至十字體, 二十八宿體, 大言 2수, 小言 2수, 危言 2수, 聯句 3수 등을 지어 수답한 바 있는데⁹⁾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남용익의 작품이 더 많고 다양하다.

이런 작품들은 부산에서 오사카로 가는 중 풍랑으로 인해 대마도와 藍島, 赤間關 등지에서 오래 체류할 때 주로 지어졌다. 특히 7월 대마도에 있을 때 吳體, 回文體, 玉連環體, 六言詩, 進退格, 三五七言詩, 集句詩, 詞賦, 변려문 등 가장 다채로운 작품을 남겼다. 그 중 다음의 회문체 시를 보자.

『效回文體』

天涯一雁歸
落月中山靜
船滯幾風驚
角殘仍夜永
煙生海路槎
葉墜秋梧井
眠罷客愁多
暗燈孤耿耿

耿耿燈燈暗
多愁客罷眠
井梧秋墜葉
槎路海生煙
永夜仍殘角
驚風幾滯船
靜中山月落
歸雁一涯天

『회문체를 모방하다』

하늘가에 기러기 한 마리 돌아가고,
달 지는 산 속은 고요하네.
벧길 막혀 몇 번을 바람에 놀랐던가.
화각 소리 쇠잔해도 밤은 길도다.
바닷길 뗏목 위로 연기가 피어나고,
가을 오동나무 금정에 잎은 지네.
잠에서 깨자 객의 시름 짙은데,
어두운 등잔불만 외로이 가물가물.

가물가물 외로운 등잔불은 침침한데,
나그네는 시름이 많아 잠에서 깨었네.
가을녘 우물 오동나무 잎은 떨어지고,
바다 가운데 뗏목 길에서 연기 이네.
긴긴 밤에 화각 소리는 쇠잔해지고,
놀란 바람에 몇 번이나 벧길 막혔던가?
고요한 가운데 산 속의 달은 지고,
하늘 한쪽 끝에 기러기가 돌아가네.¹⁰⁾

9) 『해행총재』에 수록된 김성일의 『海槎錄』 참조.

10)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종131, p.226. 본고에서 시 번역은 성낙훈의 번역(남용익, 『扶桑錄』, 『국역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5)을 참조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거나 표현을 가다듬었다.

‘회문체’는 시를 앞에서 읽을 때와 뒤에서 읽을 때 모두 격식과 의미가 통하는 시체를 말한다. 앞의 시는 『호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 뒤의 시는 필자가 시의 뒷부분부터 재구성한 것이다. 두 시의 전체적인 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잠에서 깨어 새벽까지 다시 잠 못 이룬 채 뱃길에 막혀 체류하는 처지와 주변 경관을 읊었다. ‘하늘 끝 돌아가는 기러기 한 마리’라는 표현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넉넉히 담겨 있다. 두 시의 내용 자체는 비슷하지만 시상의 기승전결 구조가 상반되고 내용의 인과 관계에 일부 변화가 생기는 등 그것을 읽는 맛에는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한 편의 시이지만 실상 두 편의 시가 되게 하려면 보통의 율시 한 작품을 지을 때보다 글자와 각 글자의 평측 격식을 더 신경 써야 한다. 7월의 어느 날 밤 대마도에서 긴긴 밤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용익은 회문체를 선택하여 소일했던 것이다.

「和秋潭玉連環體」

「추담의 옥련환체에 화답하다」

馬州音信杳難傳	대마도는 아득하여 소식 전하기 어려우니,
寸草誠深一夢懸	한 치 풀의 정성이 깊어 한 꿈에 걸렸네.
心去故園仍作客	마음은 고향을 향해도 몸은 그대로 나그네요.
口吟眞訣欲求仙	입으로 진결을 읊으며 신선을 구하고자 하네.
山山竹樹雲常暗	산마다 대와 나무에는 구름이 항상 어둡고,
日日風波纜未牽	날마다 풍파 일어 닻줄을 끌지 못하네.
牛女此時愁幾疊	견우와 직녀는 이때에 시름이 몇 겹인가?
且將消息問張騫	장차 소식을 장건에게 물어봐야 하겠네.11)

옥련환체는 앞 구의 끝 글자를 破字하여 그 일부를 뒤 구의 첫 글자로 사용함으로써 마치 옥고리처럼 연결되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앞 구의 끝 글자 속에 뒤 구의 첫 글자가 숨어 있기 때문에 藏頭體라고 부르기도 한

11)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충131, p.226.

다.¹²⁾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傳’→‘寸’, ‘懸’→‘心’, ‘客’→‘口’, ‘仙’→‘山’, ‘暗’→‘日’, ‘牽’→‘牛’, ‘壘’→‘且’, ‘鷺’→‘馬’이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형식적 규칙을 지키면서 수련과 미련의 시상 역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련에서 장진이 황하의 근원을 좇아 사행길을 떠났다가 건우 직녀와 만난 전설을 활용하였다. 마침 이 시가 7월 7일 이후에 지어졌다는 점도 고려했음은 물론이다. 7월 7일에 만났다가 헤어진 건우와 직녀는 헤어짐의 슬픔으로 시름이 몹시 클 것이다. 여기에서 건우와 직녀의 헤어짐은 남용익이 부모님과 헤어졌음을 비유하고 건우와 직녀를 만난 바 있는 장진은 소식 전달의 매개자를 상징한다. 수련에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기 어렵다고 한 내용이 미련에서 소식 전달의 매개자가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연결된 것이다.

8월 초 藍島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체류하고 있을 때 남용익은 ‘國名體’, ‘卦名體’ 시를 지었다. 또 전인의 시구에 나온 글자를 각각 운자로 사용하여 여러 편의 시를 짓는 방식을 사용하는가 하면,¹³⁾ 밤늦도록 동료들과 연구를 짓기도 했다. 그 중 ‘국명체’시를 보자.

『和秋潭國名體』 「추담의 국명체 시에 화답하다」

漢節經秋夏	한나라 사절이 여름 가을을 겪으니,
周遊屬我曹	두루 유람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지.
商量齊物理	사물의 이치가 동등함을 생각하여
鄭重越波濤	정중한 마음으로 파도를 넘고 있네.
徐市採秦藥	서불이 진시황의 불사약을 캐러 가니,
宋河容衛朔	송나라 하수가 위나라 거룻배를 허용했네.

12) 옥련환체 및 장두체에 대해서는 배규범, 「藏頭體 漢詩의 양식과 주제 의식」, 『한국시가연구』 22호, 한국시가학회, 2007과 이미진, 「조선조 藏頭體 및 玉連環體의 창작방식에 대하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참조.

13) 『海行摠載』, 『扶桑錄』, 8월 3일조, “阻風迷雨客懷無聊, 偶得鄭文忠公‘板屋雨聲多’之句, 分以爲韻, 得五字五句五篇.”

三韓杳何許 삼한은 아득히 어디쯤에나 있는가?
明月楚天高 밝은 달만 초나라 하늘에 높구나.¹⁴⁾

이 시는 유창의 '국명체'시에 화답한 작품이다. 유창이 한 구에 하나의 국명을 사용한 것과 달리 남용익은 '一句二國名體'로 지었다.¹⁵⁾ 유창이 지은 시보다 규칙을 더 추가하여 난도를 높임으로써 은근히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 한 듯 보인다. 제1구부터 8구까지 총 16개의 국명 중 의미상 국명으로 쓰인 글자는 '漢', '秦', '宋', '衛', '韓', '楚'의 6개이며 나머지 10개는 국명이 아닌 글자의 본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선의 통신사행인들 대부분은 일본을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1구의 '漢節'이란 표현도 儒學의 문명을 전수하는 입장에 있다는 의식이 넘치시 담겨 있다. 그러나 일체의 만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莊子 齊物論의 이치를 생각하여 일본을 차별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정중한 마음으로 바다를 건넌다고 말한다. 경련은 일본으로 향하는 상황을 전고 사용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사약을 캐러 간 서불은 신선세계로 향하는 시인 자신을 비유한다. 宋 나라 황하가 衛 나라 거룻배를 허용한다는 말은 『詩經』『衛風·河廣』의 '누가 황하를 넓다고 하는가. 거룻배조차 용납한 적 없었도다(誰謂河廣, 曾不容刀)' 구절 내용을 반대로 활용한 것이다. '하광'편은 송나라 桓公의 부인이 아들을 낳고서 위나라로 쫓겨난 뒤에 송나라 군왕이 된 아들 襄公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¹⁶⁾ '황하'의 규모를 거룻배 하나 두지 못할 정도로 과장, 축소시켜 송나라가 위나라와 가까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는 심정을 읊은 것인데, 남용익은 송나라와 위나라처럼 조선과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으며 배를 통해 갈 수 있게 되

14)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충131, p.232.

15) 유창, 『秋潭集』元, 「國名體」, 문충 속33, p.92, "百越通隣好, 三韓簡使能. 周輪迹不到, 漢節見何曾. 人物秦童在, 風烟蜀雨恒. 臨湖對平楚, 遺興費吳藤."

16) 毛序, "河廣, 宋襄公母歸于衛, 思而不止, 故作是詩也."

있음을 말하였다. 미련은 점점 일본에 가까이 가면서 고국과 멀어지는 심정을 읊었다. 이와 같이 이 시는 각 구마다 국명의 글자를 두 개씩 사용한다는 추가적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두 계절에 걸쳐 일본 사행길을 가는 상황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충실히 담아낸 작품이다.

남용익은 8월 12일 赤間關에서 역풍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고 배 안에 있으면서 '藥名體', '數名體', '疊字體' 등을 지었으며, 이어 8월 15일 上關에서 '扇對格' 시를 지었다. 그 중 선대격 시를 보자.

「次讀祝辰字」

「독축관의 辰자 운 시를 읽고 차운하다」

去歲曾爲視草臣	작년에는 일찍이 시초하는 신하가 되어
金鑾撤燭醉佳辰	대궐에서 촛불 사르며 좋은날에 취했었지.
今年漫作乘槎客	금년에는 헛되이 뗏목 탄 나그네 되어
玉節登臨俯海濱	옥절 들고 뱃길 따라 바닷가 굽어보네.
人事可堪隨境異	사람 일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月華猶自滿輪新	달은 오히려 둥근 것이 절로 새롭구나.
騷人莫更悲秋月	시인은 가을 달 마주해 더는 슬퍼하지 말라.
對月題詩有幾人	이런 달 보고 시 짓는 이 몇이나 되겠나? ¹⁷⁾

올시는 함련과 경련에 대장 격식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선대격'은 이러한 격식에 변화를 주어 제3구와 제1구, 제4구와 제2구가 대장이 되도록 하는 격식이다.¹⁸⁾ 격구로 대장을 맞춘다고 하여 隔句對라고도 한다. 이 시는 수련과 함련에서 작년과 올해에 뒤바뀐 시인의 처지를 비교하였고 경련에서 사람과 달을 비교함으로써 달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상을 전환하였다. 작년에 서울 대궐에서 군왕을 위해 글 짓는 일을 했던

17)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충131, p.235.

18) 『芝峯類說』 권9, 「文章部 詩法」, “扇對格者, 以第三句對第一句, 以第四句對第二句也. 如杜詩, 得罪台州去, 時危棄碩儒. 移官蓬閣後, 穀貴歿潛夫.”

시인은 현재 통신사 종사관이 되어 먼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다. 미련의 '悲'라는 표현을 통해 시인이 처지의 변화에 대해 괴롭고 힘들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마음을 다잡고자 심적인 변화를 준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보름달은 서울에서 본 것과는 다른 새로운 달이며 이런 달을 마주하여 시를 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남용익은 사행 도중 바닷가에서 슬픔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데, 이를 위해 작년과 올해의 상반된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대격을 활용한 것이다.

남용익과 그 일행들은 함께 회포를 푸는 방식으로 연구시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그들이 지은 연구시는 4구¹⁹⁾ 혹은 8구의 단편도 있으나 다음과 같이 60운의 장편에 이르는 작품도 있다.²⁰⁾

『遺懷聯句六十韻』

『회포를 풀다. 연구 60운』

...

平明鼓角動	새벽에 북과 화각 소리 울리니
大海旌旗轉	큰 바다에 깃발이 펄럭였네. (취병)
雙帆趁飛雲	쌍돛은 날아가는 구름을 쫓고,
一棹如劈箭	상앗대는 시위 떠난 화살 같았네. (추담)
濤聲百丈高	거친 소리의 파도가 백 길이나 높더니,
風色中流變	바람의 기색이 중류에서 변했네. (운곡)
再三舡折柁	두 번 세 번 배의 키가 부러져
半百命如線	50명의 목숨이 실낱과 같았네. (명빈)

19) 4구의 단편 연구로는 「雨中聯句 四絕」이 있다.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충131, p.232.)

20) 『해행총재』, 『부상록』 8월 3일조에는 남도에서 바람에 막혀 체류하고 있을 때 "연일 두 사신과 모여 대화하고 연구를 지어 괴로운 마음을 풀었다(連日與兩使會話聯句, 以破苦懷)"고 하는 말이 나온다.

顛危在須臾	순식간에 었어질 듯 위태했으나,
利涉相後先	서로 앞뒤로 순조롭게 건너왔네. (취병)
賴天獲生全	하늘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전했으니,
同舟爭喜忭	한 배 탄 사람들이 다투어 기뻐했네. (추담)
蠻村愁獨留	오랑캐 촌에 혼자 남을까 걱정하다가
鰲浦欣相見	악포에서 서로 만나 기뻐다오. (운곡)
重溟更洄沿	먼 바다로 다시 배를 띄우고 가니,
萬里一顧眄	彬 한 번 돌아보자 만 리가 아득했네. ²¹⁾ (명빈)
...	

정사 조형, 부사 유창, 종사관 남용익, 독촉관 이명빈이 순서대로 한 연(聯)씩 짓기를 15회 하였으니 한 명당 30구씩 지은 셈이다. 거성(去聲) '산(霰)'자로 압운했으며 중간에 환운하지 않고 일운도저하였다. 또한 각 연은 모두 대장 격식을 지켰다. 통신사로 임명된 뒤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마도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대마도의 풍습, 사행 중에 느낀 회포를 시간의 흐름에 맞게 읊었다.

그 중 위의 인용 부분은 41~56구로, 부산에서 대마도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화를 읊은 부분이다. 남용익은 자신이 탄 배의 키가 세 번이나 부러지는 위기상황을 맞은 것에 대해 이전의 통신사행인들은 겪지 못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풍량이 거셌다고 한다.²²⁾ 시상의 흐름은 배를 타고 순조롭게 출발했다가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우여곡절 끝에 모두 잘 도착해서 서로 재회하게 된 과정이 중간의 어색함이나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네 명이 2구씩 쓴 시이지만 네 명이 함께 직접 체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용 흐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21)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종131, p.228.

22) 『해행총제』, 『부상록』, 6월 9일조, “當日顛危濱死之狀, 實是前古使行之所無也.”

23) 참고로 남용익은 ‘연구’ 성취의 기준을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솜씨처럼 짓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壺谷漫筆』에서 조찬한 조위한 형제가 권필의 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들 셋이 함께 지은 연구 작품은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며 칭송한 바 있다. 『壺谷漫筆』人, 일본 동양

지금까지 남용익이 바다 체험 과정에서 지은 잡체시와 연구 작품을 살펴보았다. 남용익이 이런 작품들을 다른 통신사행인에 비해 많이 지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사실 남용익의 『부상록』에는 정격으로 지은 시가 더 많다. 정격의 시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편의 배율이다. 그는 사행을 가는 중에 50운의 칠언배율을 지었고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200운의 오언배율을 남겼다. 50운의 칠언배율은 통신 정사와 부사에게 화답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남용익에게 바다 체험은 한시의 정격과 변격, 단편과 장편, 개인 창작과 공동 창작 등 다양한 체식을 다방면으로 실험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Ⅲ. 상상력과 지식의 적극적 발현

남용익에게 바다는 자신의 상상력과 지식을 마음껏 펼친 공간이었다. 한시 창작에 있어서 특정한 소재나 주제에 대해 다른 사물 혹은 내용을 유추해냄으로써 두 가지 이상을 관련짓는 능력은 참신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것은 개인의 경험과 추억,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기본 바탕으로 작용하며 그것들을 詩想에 녹여낼 수 있는 개인의 창작 능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남용익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펼치는 방식의 작품도 여러 편 남겼지만 한편으로는 상상력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시를 짓기도 했다. 이것은 남용익 시의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수도 있으나 바다 체험이 그에게 상상력과 지식의 활용 능력을 한껏 고양시켜준 것 역시 사실이다.²⁴⁾

문고본(고려대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제공본 참조), 27a.

24) 바다 체험 과정에서의 작시 경향은 작가마다 다르지만 크게는 상상력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와 자신의 소회와 견문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통신사행인 중에서 역시 바다 체험시를 다량 남긴 東溟 金世濂과 비교해보면, 남용익과 김세렴이 두 가지 방식의 작품을 모두 지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놓고 볼 때

남용익의 바다 체험 시에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다. 다음 시는 그러한 주제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상상력을 동원하여 관련되게 만든 작품이다.

『走次秋潭放魚歌』

『즉석에 추담의 방어를 차운하다』

吾愛秋潭放生之心如坡仙나는 추담의 생명 아끼는 마음이 동파와 같음을 사랑하니,
 却放窮魚不烹鮮 궁한 물고기를 삶아먹지 않고 도로 놓아주었네.
 窮魚爲感再生恩 궁한 물고기는 다시 살게 해준 은혜에 감사하여
 奮鬣將飛頭自旋 날아갈듯 갈기를 휘날리며 스스로 머리 돌리네.
 始知微物與人同 미물도 사람과 다를 바 없음을 비로소 알겠으니,
 哀之不哀皆有緣 불쌍히 여김과 그렇지 않음이 다 인연이 있네.
 憶昨舟人初得魚 어제 뱃사람이 물고기를 막 낚았을 때는
 數數之罟橫其咽 촘촘한 그물에 물고기 주둥이가 걸렸었지.
 白雪鱗狀如鱸 흰 눈 같은 가는 비늘은 형상이 놓여 같아
 厨中饑客先流涎 부엌의 식탐 객들이 먼저 침 질질 흘렸네.
 拂机磨刀命若線 도마 씻고 칼 갈자 목숨이 실날같으니,
 清波咫尺難悠然 맑은 물결이 가까워도 유유히 가질 못하네.
 呼兒故寄同志者 아이 불러 일부러 뜻 같은 이에게 보내니,
 此物果被吾君憐 이 미물이 과연 그대의 연민의 정을 입었네.
 豈有校人反而烹 어찌 교인이 도리어 삶아먹겠는가?
 洋洋好返龍宮邊 천천히 용궁으로 잘 돌아갔으리.
 龍王聞之爲大笑 용왕이 물고기 말을 듣고 크게 웃으니,
 歎聲震徹千尋淵 감탄의 소리가 천 길 못에 진동하네.
 卽令六鼈護行舟 즉시 여섯 마리 자라 시켜 가는 배를 보호하리니,
 何憂大海波沂沿 어찌 대해의 물결 거슬러 올라감을 걱정하리오?
 又教雙鯉傳尺素 또 한 쌍의 잉어 시켜 편지 전하게 하여
 可慰遊子心焦煎 객지에서 애타는 나그네 심정을 위로해주리.

남용익의 시에 전자의 방식이 두드러지는 반면 김세림의 작품에는 후자의 방식이 자주 보인다.(김세림, 『槎上錄』, 『국역 해행총제』4, 민족문화추진회, 1975 참조)

吾儕從此亦感恩. 우리도 지금부터 은혜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釣不設餌仍忘筌 낚시에 미끼 달지 않고 통발도 잊어버리리.²⁵⁾

이 작품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유창이 놓아주고서 쓴 시에 남용익이 차운한 작품이다. 제1구에서 6구까지는 유창이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준 것을 예찬하고 물고기가 인자한 사람으로부터 은혜 입은 것에 대해 읊었다. 이 과정에서 남용익은 물고기가 자신을 놓아준 사람을 향해 고개 돌린 행위를 기술했고 그것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상상하였다. 이러한 상상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으리라는 후반부 내용과 연결시키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7구에서 14구까지는 물고기가 잡힌 뒤에 유창을 만나게 된 경위가 기술되어 있다. 軍官이 수십 마리를 잡고서 그 중 7마리를 아이를 시켜 유창에게 전달했는데, 농어와 같이 헛감으로 먹음직스런 물고기가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 다시 살게 된 과정을 극적으로 그려내었다.

제15구부터 22구까지는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시인의 바람을 나타내었다. 우선 시인은 『孟子』에 나오는 鄭子產과 校人の 고사를 활용하여²⁶⁾ 놓아준 물고기가 결코 중간에 교인에게 잡혀먹지 않았을 것이며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시인은 여기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龍宮’과 ‘龍王’을 가설하였다. 물고기는 용궁으로 돌아갔을 것이며 물고기로부터 은혜 입은 일화를 전해들은 용왕은 감탄한 나머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시인 일행의 험난한 뱃길 문제와 시인의 부모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六鰲’는 바다 위의 다섯 仙山을 받치고 있는 전설 속의 여섯 마리 자라로, 용왕의 명령을 받는 대상으로 설정되

25) 『壺谷集』 권12, 扶桑錄下, 문충131, p.253.

26) 『孟子』「萬章上」, “(萬章)曰, ‘然則舜僞喜者與?’ 曰, ‘否. 昔者有饋生魚於鄭子產, 子產使校人畜之池, 校人烹之, 反命曰, ‘始舍之圍圉焉, 少則洋洋焉, 攸然而逝.’ 子產曰, ‘得其所哉! 得其所哉!’ 校人出曰, ‘孰謂子產智? 子既烹而食之曰, 得其所哉! 得其所哉!’ 故君子可欺以其方, 難罔以非其道, 彼以愛兄之道來, 故誠信而喜之, 奚僞焉?’

었다. '雙鯉'는 古樂府에서 '객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한 쌍의 잉어를 주었네. 아이 불러 잉어를 삶게 하니, 그 속에 한 자의 흰 편지가 나왔네(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라고 한 이후로 편지 전달의 대명사로 쓰인다. 역시 용왕의 명령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이 가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담았다. 제23구와 24구는 미물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유창의 어진 마음에 대한 시인의 감동을 표현하였다.

이 시는 유창의 시에서 소재를 취하고 '소동파', '悠然', '校人'의 시어를 가져왔으나 시인의 상상과 작시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낚시를 통해 얻은 물고기를 삶아먹지 않고 놓아줌'이란 소재가 안전한 귀국과 부모님의 근심을 덜고자 하는 시인의 바람으로 연결된 것이다.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 시에 선계의 회구는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남용익의 시에도 여러 편이 보이는데 다음 시는 꿈속의 상상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夜過明石浦」

「밤에 명석포를 지나가다」

八月槎頭銀河客 入-陌
 扶桑萬里窮仙躅 入-沃
 着得仙翁白羽衣 上平-微
 舉手欲攀秋月輝 上平-微
 朗吟飛過明石浦 上-麤
 十二碧城清夜午 上-麤
 滄洲不礙柔櫓聲 下平-庚
 夢裡人從夢裡行 下平-庚
 夢罷東方尚未白 入-陌
 越中千山點點黑 入-職
 千山何處是蓬萊 上平-灰
 遠遠笙鶴雲間來 上平-灰

팔월에 뗏목 타고 은하수로 가는 객이
 만 리 끝 부상으로 신선 자취 찾아가네.
 신선들의 의복인 흰색 우의를 입고서
 손을 들어 환한 가을 달을 잡으려하네.
 낭랑히 읊으며 날듯이 명석포를 지나니,
 열두 굽이 난간의 벽성에 맑은 밤이 깊네.
 바다에 가벼이 노 젓는 소리 걸림이 없어,
 꿈속에 있는 이는 꿈속을 좇아서 가는데,
 꿈에서 깨니 동방은 아직도 밝지 않았고,
 월중의 수천 산은 점점이 검도다.
 수천의 산 중 봉래산은 어디에 있는가?
 멀리서 생학이 구름 속을 오고가네.²⁷⁾

밤에 명석포 부근을 지나며 지은 시이다. '飛過', '不礙' 등의 표현을 통해 배가 막힘없이 빠르게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속도감은 형식상 매구마다 압운하고 두 구마다 환운하여 촉급한 절주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어울린다. 풍랑 때문에 체류하던 때에 느꼈던 답답함이나 무료함, 고향 생각 등은 사라지고 마치 신선세계에 온 듯한 상상을 시인은 하고 있다. 신선의 옷인 '羽衣'를 입고 하늘을 날아 올라가 직접 손으로 달을 부여 잡을 정도이니 명석포 부근은 마치 신선이 사는 열두 구비 난간의 碧城처럼 느껴진다.²⁸⁾ 그러나 신선세계에서 신선 노릇하는 일은 사실 꿈이었다. 아무 막힘없이 바다를 순행하는 배의 노 젓는 소리가 귓가에 조금씩 들려 올 즈음 시인은 꿈속을 좇아 계속 꿈속에 머물고 싶다. 꿈에서 깨는 순간 신선이 된 듯한 신비로움을 더는 느끼지 못하고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꿈에서 깬 시인의 눈에는 컴컴한 밤하늘 저편의 수많은 산이 점점이 보인다. 자신이 꿈속에서 몸담고 있던 신선세계가 그 중 하나일 터인데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저 생황 불며 학 타고 다니던 王子喬가 저 멀리 구름 속을 오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²⁹⁾

통신 사행인이 바다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생각하거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 역시 흔한 일이다. 다만 남용익의 경우 자신의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량의 전고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시는 일본으로 가는 중 '鎌刈'에 잠시 정박해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³⁰⁾

27)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총131, p.232.

28) 이 시에서 '十二碧城'은 이상은 「碧城」의 "벽성의 열두 굽이 난간에서 무소불로 먼지 막고 옥으로 추위를 막네(碧城十二曲闌干, 犀辟塵埃玉辟寒)" 구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29) 『列仙傳』, "周靈王太子晉(王子喬), 好吹笙, 作鳳鳴, 游伊洛間, 道士浮丘公接上嵩山, 三十餘年後乘白鶴駐緱氏山頂, 舉手謝時人仙去,"

30) 이 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감회를 읊은 작품이다. 시의 주제는 '바다' 자체와 관련이 없으나 제3구를 통해 '바다' 체험 과정에서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 사행이란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 위 혹은 바닷가에서 일본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작품 역시 바다 체험 과정에서 생겨난 생각이므로 '바다 체험 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十三疊自道』

『13번째로 거둬 차운하여 스스로 말하다』

壯心曾慕棄繻生	장한 뜻은 명주조각 버린 소년을 흠모하여
欲請長纓佐太平	긴 갓끈 청해 태평성세를 돕고자 하였네.
玉節空勞浮海遠	멀리 바다 건너느라 옥절 들고 고생만 하고,
銅標不見掃塵清	먼지 쓸어 맑게 한 銅柱 표지는 보이지 않네.
能忘舉郢剗陵耻	郢을 뺏기고 夷陵이 불탄 치욕을 잊을 수 있으랴?
竟負擒吳伯越情	오왕 생포해 월왕을 패자로 만들 뜻을 끝내 못 이루네.
撫劍中流仍擊楫	칼을 어루만지며 중류에서 노를 두드리노니,
男兒幾箇是干城	남아 중 나라 지킬 인재 몇 몇이나 되는가?31)

『해행총재』에는 이 시의 제목이 ‘두 사문이 거둬 城자 운 시를 차운하여 15편이나 지었으므로 이끌려서 즉시 화답하다[兩斯文疊次城字韻至十五首牽率走和]’로 되어 있고, 시 끝에 ‘이상은 스스로 감개함을 말하였다[右自道感概]’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³²⁾

이 작품은 외적에게 침략당한 치욕을 씻고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책감을 강개하게 읊은 시이다.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는 復讐雪恥의 대상이 일본인지 청나라인지 불분명하다. 남용익은 9세에 병자호란을 겪고 피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의 시 내용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의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가 일본으로 가는 중에 지어졌고 시의 일부 내용이 임진왜란과 관련성을 지니며 남용익이 임진왜란을 떠올리거나 일본에 대한 부정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음을 고려해볼 때 복수의 대상은 일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그가 치욕과 복수의 의지를 강개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역사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련은 前漢 때 從軍이 關門 왕래의 신표인 비단 조각을 받지 않고 반드시 출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31) 『壺谷集』 권11, 扶桑錄上, 문총131, p.237.

32) 『해행총재』, 『부상록』, 8월 20일조.

고사³³⁾와 한나라 왕이 종군을 南越로 사신보내기 전에 먼저 자칭하여 '긴 갓끈을 받아 기필코 남월왕을 포박해 대궐로 끌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한 일화³⁴⁾를 끌어들었다. 이를 통해 남용익 자신도 큰 뜻을 품고 오랑캐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함련은 후한의 馬援이 交趾를 정복하고 구리 기둥을 세워 한나라 남쪽 변경의 표지로 삼은 고사를 사용하였는데, 시구에는 마원처럼 오랑캐를 평정하지 못한 자괴감이 묻어난다. 경련의 앞 구는 전국시대에 秦나라가 초나라 수도를 침략하여 초나라 선왕의 묘인 夷陵을 불태운 고사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한성이 함락되고 성종과 중종의 묘가 왜구에 의해 훼손된 것을 비유한다. 경련의 대구는 춘추시대 월나라 范蠡가 월왕 구천을 도와 오왕 부차에게 복수하고 결국 구천을 패자가 되게 한 고사를 활용하였다. 이 고사를 통해 범려와 같이 큰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자괴감을 드러내었다. 미련은 東晉의 祖逖이 흉노를 정벌하러 가면서 강 중류에 이르렀을 때 증원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일화³⁵⁾를 끌어들었다. 이를 통해 시인 자신에게 조적과 같은 강대한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같이 8구의 시 안에 다섯 가지의 역사 전고를 활용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을 시에 마음껏 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용익은 200운의 오언 장편배율을 짓는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 다시 일본과 교류하게 된 경위, 남용익과 통신 정사, 부사가 차출되어 일본을 다녀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겪은 여러 견문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이 작품은 남용익 본인이 자신의 작품 중 가장 우수하다고 말할 정도의 역작인데³⁶⁾, 통신 사행일을

33) 『漢書』「終軍傳」, “初軍從濟南當詣博士, 步入關, 關吏予軍繻. 軍問, ‘以此何爲’ 吏曰, ‘爲復傳, 還當以合符.’ 軍曰, ‘大丈夫西游, 終不復傳還.’ 棄繻而去. 軍爲謁者, 使行郡國, 建節東出關, 關吏識之曰, ‘此使者乃前棄繻生也.”

34) 『漢書』「終軍傳」, “軍自請, ‘願受長纓, 必羈南越王而致之闕下.’”

35) 『晉書』「祖逖傳」, “仍將本流徙部曲百餘家渡江, 中流擊楫而誓曰, ‘祖逖不能清中原而復濟者, 有如大江.’ 辭色壯烈, 衆皆慨歎.”

36) 『壺谷漫筆』人, 앞의 판본, 43a, “凡詩以氣爲主, 余點檢一生所作扶桑錄似最優, 其中

마치고 귀국하는 중 적간관으로 향하는 배 안에서 지었다. 긴 편폭에 평측과 압운을 모두 맞추면서도 시인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였다.³⁷⁾

『除夜放舟行二百里紀壯遊述客懷得二百韻排』

『선달 그믐날 밤에 배를 띄워 200리를 가면서 장대한 유람을 기록하고 객의 심정을 서술하여 200운의 배율시를 짓다』

...

龍蛇當運厄	용사의 해에 조선이 액운을 당하여
蠶虺作邊虞	전갈, 살무사가 변방 걱정거리였네.
窘甚離邠邑	상황이 몹시 다급하여 빈읍을 떠났으니,
聲言假號途	픽나라로 가는 길을 빌리겠다 소리쳤네.
楚危陵寢辱	초나라가 위태롭자 능묘가 욕을 당하고,
燕破耄倪俘	연나라가 격파되자 노인 아이는 포로가 되었네.
貫槩殘如拓	아이를 창끝에 켜 잔학함은 拓跋과 같고,
投鞭衆若苻	채찍 던질 군사의 많음은 苻堅과 같았네.
金甌直未缺	황금사발은 마땅히 흠이 없겠지만,
赤子竟何孤	백성이 끝내 무슨 죄가 있던 말인가?
痛切宸廷籲	명나라 조정에 통절하게 호소하니,
恩深絕世扶	은혜가 깊어 멸망 직전에 도와주었네.
源氏修隣好	원씨가 우호 교린을 맺으려 하자
權宜出廟謨	조정에서 임시조치로 허가하였네.
固知湯餉葛	실로 탕이 갈백을 먹여 준 것이니,
休謂越忘吳	월나라가 오나라 잊었다 말하지 말라.
鯨浪烽無警	고래 물결에 봉화의 경계는 사라졌고,
雞盟血不渝	닭 잡은 맹세에 피가 변하지 않았네. ³⁸⁾

...

如富士山歌壯遊二百韻等作。氣衰後不可得。”

37) 이 시에 나타난 남용익의 일본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윤재환, 「<제야방주행이백리기장술회객회득이백운배(除夜放舟行二百里紀壯遊述客懷得二百韻排)>를 통해 본 남용익의 이원적 인식세계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5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1 참조.

38) 『壺谷集』 권12, 扶桑錄上, 문종131, p.254.

위 부분은 시의 전반부에 해당하며 임진왜란 이후 다시 일본과 국교를 맺는 과정을 읊었다. 내용의 대부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 전고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몹시 다급하여 빈읍을 떠난 것’은 옛날 주나라 태왕이 狄人의 침입을 받고 빈을 떠나 岐山 아래에서 살았던 고사를 사용한 것으로³⁹⁾,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주로 피난한 것을 비유한다. ‘픽나라로 가는 길을 빌린다고 한 것’은 춘추시대 췌나라가 虢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虞나라 길을 빌리겠다고 한 것을 말한다. 당시 진 나라는 픽 나라를 정벌한 뒤에 우 나라도 멸망시켰다.⁴⁰⁾ 일본이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리겠다고 한 것을 비유한다.

‘초나라의 능묘가 옥을 당한 일’은 앞의 시에 나온 바와 같이 임진왜란 때 성종과 중종의 묘가 파헤쳐진 것을 비유하며, 우리 백성들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연나라 노인과 아이가 제나라 포로가 된 것으로 비유하였다. 탁발은 남북조 시대 北魏의 지배층 성씨이다. 이들이 남방의 宋나라를 격파했을 당시 아이를 창 위에 꿰어 빙빙 돌리면서 놀이로 삼았다고 한다.⁴¹⁾ 일본군의 만행과 잔학함을 강조한 표현이다. ‘채찍 던질 군사의 많음이 부견 같다’는 말은 前秦의 苻堅이 東晉을 치러 갈 때 부하 장수가 長江의 험함을 걱정하자 강에 채찍을 던져 물줄기를 막을 만큼 군사가 많다고 한 부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⁴²⁾ 이를 통해 일본군의 병력 수가 많음을 비유하였다.

‘황금 사발이 흠이 없다’는 말은 ‘나의 국가는 황금 사발과 같아 하나의 상처나 흠도 없다’라고 한 梁武帝의 말에서 연유한다.⁴³⁾ 국토가 유린되지

39) 『孟子』「梁惠王下」,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去之岐山之下居之, 非擇而取之, 不得已也.”

40) 관련 내용이 『左傳』「僖公」 2년과 5년 조에 나온다.

41) 『資治通鑑』 128권, 「宋紀」 8 “魏人凡破南兗徐兗豫青冀六州, 殺掠不可勝計, 丁壯者即加斬截, 嬰兒貫於槊上, 盤舞以爲戲.”

42) 『晉書』「苻堅載記」, “前秦苻堅將攻東晉, 部下石越認爲晉有長江之險, 不可輕動. 苻堅說 ‘以吾之衆旅, 投鞭於江, 足斷其流, 何險之足恃’”

않기를 바라는 시인의 심정을 담고 있다. '탕이 갈백을 먹여준 것'은 제사 지낼 희생과 곡식이 없는 오랑캐 갈백에게 商나라 탕왕이 소, 양과 농사 지을 사람을 보내준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⁴⁴⁾ 여기에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복수한 일화를 함께 사용하여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시 우호 교린을 맺는 일은 오랑캐 나라를 도와주려는 것이지 복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은 것이 아님을 말하였다.

IV. 결 론

이 글은 통신사행인의 바다 체험 한시를 살피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대상 작가를 남용익으로 하였는데 남용익은 1655년 통신사 종사관이 되어 일본을 오가는 과정에서 많은 바다 체험시를 남겼고 또 그가 다른 작가와 차별화된 작시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용익은 바다 체험 과정에서 시의 창작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그는 배 안에 있거나 섬에서 잠시 체류할 때 정격의 시 뿐만 아니라 잡체시로 분류되는 다양한 체식의 시를 지었고 또 동행했던 동료들과 함께 여러 편의 연구시를 지었다. 잡체시는 희작으로 분류되지만 정격의 시에 규칙을 추가하거나 변형한 체식이기 때문에 창작의 난해함을 극복해야 하며, 연구역시 공동의 창작이기 때문에 혼자 지을 때와 달리 시상의 흐름과 연결이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용익은 유희적이면서도 집중이 요구되는 체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소일함으로써 사행의 답답함과 무료함, 근심과 걱정, 슬픔 등의 회포를 풀었던 것이다.

한편 남용익은 바다 체험 과정에서 자신의 상상력과 지식을 시에 적극

43) 『南史』「朱彝傳」, “武帝嘗夙興至武德閣口, 獨言 ‘我國家猶若金甌, 無一傷缺.’”

44) 『孟子』「滕文公下」, “孟子曰, 湯居亳, 與葛爲隣, 葛伯放而不祀, 湯使人問之曰, ‘何爲不祀?’ 曰, ‘無以供犧牲也’ 湯使遣之牛羊, 葛伯食之, 又不以祀, 湯又使人問之曰, ‘何爲不祀?’ 曰, ‘無以供粢盛也’ 湯使亳衆, 往爲之耕, 老弱饋食.”

적으로 발현하였다.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 중간에 연결 장치를 설정하는가 하면 꿈속의 상상을 통해 신선 세계에 대한 희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임진왜란을 떠올리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할 때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다양한 역사 전고를 聯想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남용익의 바다 체험은 그의 나이 28세에 있었던 일이다. 그 스스로 『부상록』을 평생 저작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만큼 당시 그가 지은 작품들은 공력을 들인 역작이었다. 그 공력은 정격과 변격, 단편과 장편, 개인 창작과 공동 창작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을 시도하면서 상상과 연상 능력을 발휘하고 확대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결과적으로 바다 체험은 남용익의 작시 능력을 크게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남용익, 『壺谷集』, 한국문집총간 131, 한국고전번역원.
- 남용익, 『壺谷漫筆』, 일본 동양문고본(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제공본).
- 유 창, 『秋潭集』, 한국문집총간 속33, 한국고전번역원.
- 이수광, 『芝峯類說』,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김세렴 저, 신호열 역, 『槎上錄』, 『국역 해행총재(海行摠載)』 4, 민족문화추진회, 1975.
- 남용익 저, 성낙훈 역, 『扶桑錄』, 『국역 해행총재(海行摠載)』 5, 민족문화추진회, 1975.
- 박우훈, 「호곡 남용익 문학론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배규범, 「雜體詩의 範疇와 現況—佛家漢詩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3, 대동문화연구원, 2006.
- 배규범, 「藏頭體 漢詩의 양식과 주제 의식」, 『한국시가연구』 22호, 한국시가학회, 2007.
- 윤인현, 「한국 한시에 나타난 '바다' 소재와 주제」,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화회, 2009.
- 윤재환, 「제야방주행이백리기장술회객회득이백운배(除夜放舟行二百里紀壯遊旅客懷得二百韻排)를 통해 본 남용익의 이원적 인식세계와 그 의미」, 『한민족어문학』 59호, 한민족어문학회, 2011.
- 이남면, 「남용익의 잡체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6호,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2014.
- 이미진, 「조선조 藏頭體 및 玉連環體의 창작방식에 대하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이미진, 「朝鮮中期 雜體詩 創作에 대한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임채명, 「조일 문사의 눈에 비친 남해 그리고 현해탄」,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회, 2009.
- 허경진, 「수로초천록과 통신사행록의 바다 체험 비교」, 『한국한문학연구』 43, 한국한문학회, 2009.

Abstract

Ocean Experiences and Chinese Poems of a Tongsinsaeng(通信使行) Member -With a focus on Nam Yong-ik(南龍翼)-

Lee Nam-my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hinese poems about ocean experiences by a Tongsinsaeng member. For this purpose, the study delved into Chinese poems about ocean experiences by Nam Yong-ik(1628-1692) in forms and expressions. Nam Yong-ik visited Japan as a Jongsagwan for Tongsinsa in 1655, not only writing a number of poems about ocean experiences in Busangrok, but also exhibiting his own distinct trend of poetry writing.

He diversified ways of writing a poem in the process of experiencing the ocean. When he was onboard or stayed on an island, he wrote poems in various systems and forms classified as Japche(雜體) poems in addition to those in regular forms and often worked together with his colleagues in joint poems. Although Japche poems are classified as poems written for amusement, one can have a difficult time writing a Japche poem due to the addition of rules or restrictions to regular forms of poetry. Since joint poems require collective creative efforts, poets should be careful not to have unnatural flows and connections of their poetic ideas. Nam would spend his time on a Sahaeng trip to Japan by writing playful poems in various systems and forms that required his concentration, thus unburdening himself and pouring out his dullness, boredom, concerns and worries, and sorrow on the trip.

He also manifested his imagination and knowledge in his poems actively in the process of having experiences with the ocean. He would set a connective device in the middle of a poem by mobilizing his imagination to connect two things that seemed irrelevant to each other or express his longing for the world of Taoist hermits with miraculous powers through his imagination in dreams. He also expressed his animosity to Japan, recalling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characters &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Korea University / Inm96@hanmail.net

Imjinwaeran and associated and compared various situations to authentic historic precedents.

He had these ocean experiences at the age of 28. His works created during the time were such masterpieces to which he devoted his efforts that he said Busangrok was the most outstanding work of his life himself. His creative devotion was embodied in his efforts to exert and expand his imagination and association abilities by making an attempt at creation in various styles including poems in regular and irregular forms, short and long works, and individual and joint creations. As a result, his ocean experiences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him to improve his abilities of poetry writing to a great degree.

【Key words】 Tongsinsaeng member, ocean experience, Nam Yong-ik, Japche(雜體) poem, joint poem, unburdening oneself, imagination, knowledge

투고일 : 5월 17일, 심사완료일 : 6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18일

